

농수산업만 부각됐던 전남에 미래산업 희망 심었다

설립 11년째를 맞고 있는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내며 산업단지들의 본부(headquarters)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교적 단기간에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고 지원기관을 속속 설립해 궤도에 올린 것이다.

설립 11년 지역산업 지휘본부 ... 지원기관 속속 설립

울촌산단에 있는 테크노파크 본원 외에 순천 해룡산업 단지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등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신소재 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신소재센터, 목포 대양산단에 반도체, 웨이퍼, 항공기, 광산업, 군사용 무기 등에 사용되는 구조용 세라믹 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라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 대불산단에 대한 연구·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원천 과학기술 및 산업화기술의 개발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고흥에는 탄소 복합재, 박막 소재 등 고분자 복합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고분자 융·복합 소재산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장성에 반도체산업, 의료산업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레이저기공 시스템 산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보성에 경량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지원동, 영광에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등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전남 동부권·서부권·중부권 산업구조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산업진흥계획' 2년 연속 우수 ... 5개 특화산업 201억 투입

이러한 11년간의 성과인 5대 지역특화산업을 집대성해 전남도와 공동기획한 '2014 전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13개 시도 대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아 상사업비 39억원(2013년도 45억원) 포함해 모두 141억원의 국비를 안겨줬다.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서비스,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내 산·학·연·관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지역 특화산업 기획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국비 141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모두 201억원으로, 올 상반기 내 구조·기능 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 고분자 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 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산업 등 5개 산업과 관련 기술개발(R&D) 과제, 기업 지원(비R&D) 주관기관 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소재센터 국책사업 선정·고분자융복합센터 등 지원 기업 '쑥쑥'

이 같은 성과는 기업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문을 연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량고속 산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신소재센터가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원에 나선 기업 255개사의 매출액이 5006억원에 이르고, 이들 기업이 창출한 고용인력도 1243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연관기업 15개사 및 2500억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해 6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센터 내 입주기업인 (주)휴메릭은 마그네슘 소재의 LED용 방열관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면서 올해 매출액 300억원이 예상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신소재센터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핵심소재(WPM)개발 국책사업에 선정돼 포스코 마그네슘 판매 공장 등과 함께 '수송기공 고강도 마그네슘 벌크재 개발'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남을 세계

적인 경량고속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있다.

고분자융·복합소재센터 입주기업인(주)에스컴텍에서는 고분자 복합소재를 이용한 21/28/36mm의 모듈하우스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개발이 완료된 모듈하우스는 최고급 요트 디자인과 시공공법이 적용된 제품으로, 지난해 말 충북 수안보 스키리조트에 3대를 설치했으며 추가로 제주 해양레저단지에도 5대를 수주한 바 있다.

모듈하우스는 7m 크기 기본 거주유닛 3개를 결합한 기본형(21m)이 약 2000~300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4~8개까지 결합해 용도에 따라 최소 14m부터 건축시공이 가능하다. 모듈하우스는 침실·욕실·부엌·거실 인테리어까지 공장에서 시공·납품되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도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캠핑시장에서 주목받는 제품이다.

에너지 자립섬 단지 구축 ... 미래·신재생에너지 사업 매진

미래사업추진실 신재생에너지팀은 지난 2012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기반 융·복합 에너지시스템 계통연계 기술 개발 사업'의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도로서로 선정돼 현재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다.

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한전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전기연구원에서는 총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가사도(진도군), 안좌도(신안군) 일원에 에너지 자립섬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50억원을 추가 투입해 하화도(여수시)로 사업을 확장한다. 미래사업추진실 미래사업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기획 분야에서 3개 과제가 선정되는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지원단은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대국민 프로젝트인 '2013년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3년전부터 흑자 전환 ... 5개 주력산업 인프라 구축 완료

홍종희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농수산업만 부각됐던 전남도에 새로운 미래산업의 희망을 제시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업들이 손쉽게 정부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기업 집적과 중점산업 육성 등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홍종희 전남테크노파크원장(61)은 지난 2009년 8월 부임한 뒤 전남테크노파크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처음 발을 딛었을 때 실적은 미미했고, 테크노파크의 재정은 적자였으며,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홍 원장은 "부임할 때 주변에서 전남의 기업들이 중앙정부의 제도를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당시 테크노파크가 적자운영 상태였는데 재정자립을 달성하는 것을 부탁했다"며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했고 전남의 미래 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과 재정자립을 위한 민간경영 기법의 도입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테크노파크 중장기 발전계획을 직접 만들어 직원조회를 통해 설명하고 경영전략을 확정짓고 후 중앙정부 제도를 포함한 수탁성 사업 추진, 직원복지제 시행, 성과연봉제 도입, 출연금 사업 운영제 도입, 연구수당제 운영, 노사협의회 신설, 직렬통합, 22개 시군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지난 2013년도에는 15억원의 경상 흑자를 달성, 재정자립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또 지난 2009년 세라믹센터에 이어 과학기술진흥센터, 경량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지원동, 고분자 융·복합소재산



업 지원센터, 마이크로 레이저시스템 산업 지원센터,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등 현재 전남의 5개 주력산업의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기도 했다.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사업예산은 300억원에서 650억원 수준으로, 인력은 54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기업은 250여 업체에서 580여 업체로, 수탁 사업은 연간 18억원 수준에서 254억원으로 14배 이상 늘어났다.

홍 원장은 "직원들은 물론 기업체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 전남의 10대 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신소재, 고분자화학,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차량, 조선해양산업, 우주항공, 의료기기 등 7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박사로, 지난 1977년 기술고시 합격 후 공업진흥청에 들어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장,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장을 거쳐 지난 2009년 제3대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에 취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창사 62주년

(주)국토정보기술단
NARA PLANNING & INFORMATION TECH Group, INC.

기주회사 (주)나 라 조 경
(주)국토환경디자인
(주)나 라 P & D

360°

Wide Thinking

최고의 기술로 국토개발을 책임져 온 '(주)국토정보기술단'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업분야

- 학술연구용역
-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 도시계획·설계
- 토목설계
- 건축설계
- 조경계획·설계
- 전기통신소방설계
- 측량 및 지도제작
- 해양엔지니어링
- 토지적성평가
- 환경영향평가
- 재해영향검토
- 교통영향평가
- 건설사업관리(CM/CS)
- 종합감리업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연락처 | CEO 문병채 박사 Tel +82-62-431-0079 Fax +82-62-383-4773